

"평범하면 까인다"라는 문장이 서브 타이틀인데요,

무수히 많은 펭귄 중에서 핑크색 펭귄이 한마리라도 있으면 그 펭귄은 어디서든 주목받는 다는 것입니다.

마케팅에서 핑크펭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

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 하필이면 우리 기업을 골라야할만한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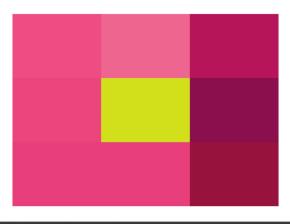
저는 반대로 [핑크펭귄] 만 있는 공간에서 핑크색의 보색인 [녹색 펭귄]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.

<u>핑크펭귄도 무수히 많아지면 그저 핑크색펭귄일 뿐인 듯 합니다..!</u>

/usr/local/lib/python3.7/dist-packages/plotnine/utils.py:1246: FutureWarning: is\_categorical is deprecated and will be removing pdtypes.is categorical(arr):

/usr/local/lib/python3.7/dist-packages/statsmodels/regression/quantile\_regression.py:192: IterationLimitWarning: Maximum num

") reached.", IterationLimitWarning)



<ggplot: (8742547146041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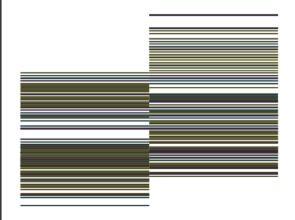
## ▼ 두 번째 작품: 상보성

<u>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</u> **상보성**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.

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, 서로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서로가 맞닿으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, **그리고 그 속에서 긍정의 색인 노란색을 분출**하여 상보성이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.





<ggplot: (8742547565105)>